

내년 국제쌀가격 상승전망

미농무성 예측, 고품질 쌀시장 혼란우려

『1997년 세계 쌀시장상황은 생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대폭적인 수입증가가 계속되어 쌀재고율은 12.5%까지 하락할 것이며 국제쌀가격은 상승추세에 놓일 것이다. 특히 중국의 수입량은 1백25만톤에 이르러 앞으로 세계 최대규모의 수입국이 될 것이며 가까운 장래에 고품질 쌀시장에 극단적인 상황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다』

이같은 사실은 미국 농무성이 발간하는 《곡물-세계시장과 무역》7월호에서 쌀문제를 특집으로 예측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97년도(96/97) 세계 쌀생산과 소비량은 3년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며 무역량은 96년도에 비하여 약간 증가할 것으로 보고있다. 사상 최고의 소비를 기록한 95년도에는 2천90만톤에 이르렀으며 수입 수요의 증대로 재고율은 6년연속 하락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재배면적은 96년보다 6.7% 감소한 1백 18만헥타르, 생산량은 버로 환산하여 2.9% 감소한 7백 66만톤인데 이에 비하여 국내소비량은 아시아계의 이민 증가로 2.8% 증가한 4백86만톤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따라 미국의 쌀수출량은 2백30만톤이 될 것이며 인도의 3백만톤, 베트남의 2백50만톤에 이어 세계 4위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태국은 5백50만톤으로 세계 최대수출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수입은 인도네시아가 1백50만톤으로 3년 연속 세계최대를 기록할 것이며 필리핀도 1백만톤의 쌀을 수입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93년까지 세계 4위의 쌀수출국이었던 중국도 1백만톤 이상을 수입할 것이며, 특히

중국은 고품질 쌀 수입이 대폭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따라서 머지않아 세계의 고품질 쌀시장에 극단적인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즉 미국과 요르단의 국내생산감소와 소비증가로 수출량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태국과 호주, 인도, 파키스탄은 생산면적의 확대가 한계에 이르러 결국 97년 국제 쌀가격은 상승할 것이란 예측이다.

한편 이 특집은 UR협정 결과에 따라 시장을 부분개방한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즉 일본의 97년 쌀수입량은 60만톤, 국내생산량은 1천3백30만톤으로 3백40만톤의 과잉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한국은 생산량이 6백40만톤으로 6년 연속 생산량이 소비량에 못미칠 것으로 보이며 국내생산감소에 따라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의 4.7배 이상인 35만톤의 쌀을 수입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농업정보**

세계 쌀수급 예측 (단위: 정미 100만톤)

		95/96	96/97
수급 연 황	기초재고	49.46	48.55
	생산량	371.28	375.69
	수출량	19.55	19.55
	소비량	372.18	376.96
	기말재고	48.29	47.28
수 출 량	태국	5.50	5.50
	베트남	2.80	2.80
	미국	2.68	2.32
수 입 량	인도네시아	1.25	1.50
	중국	0.75	1.25
	일본	0.45	0.60

자료 : 미국농무성 96. 8. 12